

# 총여학생회의 조직적 발전과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 들어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

'87년 이후 온갖 억압받는 민중들의 변혁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면서 학원 내에서도 학우들의 자주적 요구가 분출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받아안을 수 있는 조직, 학생회 건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학생회가 차츰 학우들 내에서 자리잡으면서 더욱더 다양화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을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 속에서 학생이라는 처지 속에 보다 좀 더 구체화된 여학생이라는 정체감에서 나오는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을 수 있는 조직체, 총여학생회 건설이 제기되었다. (물론 부체계, 위원회체계 등 다양한 체계로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총여학생회는 '학생회'라는 이름에 맞게 진정 여학우들의 처지에 근거하여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틀거리를 세워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체 여학생운동 관에서도 아직 여학생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여학생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여학생회가 건설된지 5년가량(학교마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이 흘렀다.

이 세월동안 여학생회가 자기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여학우들 사이에서 지위를 확고히 굳히지는 못했지만 자체 운동내에서도 전혀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국에 '여학생대표자 회의'라는 틀을 마련하여 하나된 힘으로 결집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만들었던 기간의 여러 투쟁, 사회제반어안요소 척결투쟁(보은, 진관투쟁, 정신대문제 해결투쟁, 윤금이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한미협계전투쟁)을 미흡하지만 성과적으로 전개하여 재 여성단체와의 결합 속에서 여성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대두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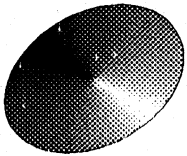
하지만 여학생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인간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여학생들의 단면에는 크게 부응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여학우들을 튼튼하게 집단화, 조직화 시켜낼 것에 대한 요구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회다운 역할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총여학생회가 전개하는 여학생운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서부터 확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효 변화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자.

기간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전망을 내오고 간부들의 혁신과 더불어 여학생운동의 상황을 마련하자.

# 몸말

## 1.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우들의 처지에서 나온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는 조직적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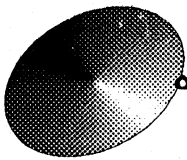


### 여학생운동의 일반적 의미

여학생운동은 말 그대로 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운동을 말한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운동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억압받는 처지를 깨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 의지가 집단화 되고 조직화되어 운동이 전개된다.

여학생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이라는 자신의 처지에서 다가오는 온갖 억압의 요소를 깨려는 의지가 학원내에서는 여학생운동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처지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 한계는 명확하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의지를 집단화 시키는 것이 요구되어지며 또한 조직적으로 진행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학원내에서 몇몇 선진적인 학우들에 의해 소모임(계, 독서토론회의 형식)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명분 속에서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었다.

이렇듯 총여학생회는 집단화, 조직화 시킬것에 대한 요구를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 여학우들의 처지 속에서 나오는 여학생운동이 가지는 의미

#### 1) 여학우들의 처지

그렇다면 우리 여학우들의 처지는 무엇인가?

'삶이 곧 운동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지금의 학생회를 일컬을 때 삶,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 대표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우리들의 일상생활 모습 하나하나에 억압의 요소 깊숙히 내재해 있다. 그것은 삶과 투쟁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풀어나가는 - 개개인의 자주성을 발양시켜 나가는 - 그 과정이 곧 투쟁의 요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귀결로 당위성을 띤다.

여성들의 삶은 어떠한가?

'불 속에 있는 불고기는 자신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 요소는 가장 깊숙히 은폐되어 있고, 때로는 이런 요소들이 여성에 대한 찬사와 모성애에 대한 환상, 사랑이라는 환상의 매혹물로써 개각성 억압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 내기 힘들게 한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밀도의 부시경을 통한 과학적인 분석을 해낼 것이 요구되어지며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나 일반 여성들의 주체적인 자기혁신과 자기발전의 통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그렇다면 사회속에서 여성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가로막고 있는 (기저는 무엇인가?)

여성문제의 기원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성별분업이 차별적인 성별분리 체계를 형성한 것과 사회적소유와 계급 발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문제의 기본모순을 들라 한다면 성모순, 계급모순으로 대표되며 우리 남한사회와 같이 식민지 상황에 있는 민족들에게 있어 민족모순이 또 하나의 커다란 모순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모순속에 살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처지이다.

우리 남한사회는 일제의 강점과 미제의 침탈로 이어지는 분단속에서 7천만 민중이 수난을 받아온, 민족의 분제가 첨예화된 그런 사회이다. 따라서 남한 여성들의 처지는 민족의 문제로부터 기형적으로 성모순과 계급모순이 얽혀져 있어 일제하의 정신대로부터 현재 기지촌과 기생관광에 이르는 역사적인 문제를 낳았다. 미군의 주둔과 분단이래는 상황은 한국사회를 군사화시키고 군문화가 사회 속으로 확대되는 기초가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종속적 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그 보합기조로 분단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가부장적 사회성격을 유지,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여기서 노동여성의 문제, 농민여성의 문제, 빈민여성의 문제 등 부문 여성들의 문제가 얽혀들어 나타난다. 이렇듯 민족의 처지는 여성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근본문제로서 여성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 할 것이다.

여학생의 처지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서술한 여성문제와 사회적인 억압기저로부터 일정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여대생의 처지이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새로운 형태의 여성억압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여대생! 공부야 본분이라는 학생의 처지는 어떠한가?'

대개 여성은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이라고 인식되어져 있다. 그러나 여대생은 이러한 개념에 있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회특수층으로 선전되어와 인텔리 여성으로, 전문인(진출할 수 있는 전문분야도 다양화되지 못하고 성별분업에 의해 편중되어 있지만)으로 사회에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념적 공세로 경쟁사회에서도 여성 자신의 노력으로 뛰어나기만 하면 제반 사회차별의 벽을 넘을 수 있으니 슈퍼우먼처럼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이나 개인의 전망을 모색 하라고 하는 면이 있다면, 마스크에 의해 조장되는 '빨간 립스틱에 쪽 뺨은 다리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멋짐(?) 남자와 나란히 걸어가는 여대생'의 이미지는 사회에 허영과 사치풍조를 조장하고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는 식의 결혼 제일주의를 낳게하여 남자에게 종속되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길들여져야 할 것을 강요 받고 있다.

또한 연애에 대한 관념성이나 환상의 요소가 대학생활 전반의 사고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로의 지향보다는 개인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지향을 조장해 나가며 자신의 개성과 처지, 능력에 맞는 자기개발보다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그래서 온순하고 순결한 여대생의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을 조장한다.

한마디로 여자로 길들여지는 연장선에 계급상승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경쟁사회의 유포가 어려워져 비역사적이고 비사회적이며 비정치적인 여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폐쇄적인 소그룹형태의 모임도 그러한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작은 모임이라도 찾아나가고 그 모임의 폐쇄성을 깨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잡담도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여대생들은 청년학생들 특유의 진취성과 패기, 이학적 자질을 끈끈하게 소유하고 있다. 가장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외피로 억압받아온 여성들의 처지로부터 투쟁의 요소가 삼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감을 올바로 깨워냈을 때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민족운명의 주인으로 우뚝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나 통치가 여대생들을 분산화시키고 개인화 시키며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잡담 속에서 처럼 자신 개인만의 문제로 인식되던 것이 전체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되었을 때 비정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 주체적인 여성으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 2) 여학생운동의 내용

지금까지 여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기반하여 여학생운동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 있어 견지하여야 할 관점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여학생운동은 앞에서와 같이 이러한 처지에서 나오는 제반 억압요소를 깨어 나가는 활동 즉,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궁극적으로는 사회변혁의 요구)를 실현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며, 그 활동의 주체는 여대생이다. 여대생이 주인공되어 활동할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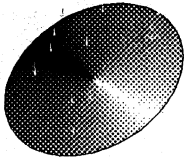
- ▶ 성차별의 불평등 요소를 양산하는 미제국주의와 이에 결탁한 지배세력, 이를 광고히 해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맞서 민족의 힘으로, 여성의 힘으로 사회구조적 모순 하나하나를 변혁해 내어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이루는 활동을

미제국주의, 가부장제, 민족의 힘으로, 여성의 힘으로, 사회구조적 모순 하나하나를 변혁해 내어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이루는 활동을

전개한다.

- ▶ 학원내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의식과 구조를 철폐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더불어 사회에서 벌어지는 억압요소를 깨어 나가는데 연대하여 싸워 나간다.
- ▶ 모든 운동의 주체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자신의 억압받는 처지를 깨닫도록 닫혀있던 말문을 공개화하고 참여의 공간을 넓혀냄으로서 억압의 근본을 깰려는 의지, 힘을 조직적으로 도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해결 하나하나를 함께 하려는 의지를 학생회 두리에 모아 이 의지를 조직적으로 풀어나가는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 II .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총여학생회의 사명

여학생운동은 이 세가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의 자주적이고 대중적인 조직, 총여학생회를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기본사업으로 하는 총여학생회는 어떻게 사업을 벌어나갈 것인가?

먼저 앞에서 말했듯이 총여학생회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명을 건설배경에서 찾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원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문제를 학원내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풀어나갈 것에 대한 순수 여성운동의 요구
- ② 학생회 발전에 따른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분출 속에서 공간 학생회에서 모두 받아안을 수 없는 여성이라는 본연의 처지에서 나오는 문제를 근본부터 다각적으로 해결하고 의, 조직화시킬 것에 대한 학생회 역할 분담의 요구.
- ③ 전체학생운동과 구국운동속에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에 대한 요구  
이러한 요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학우들의 처지를 인식시키고 이 인식된 학우들을 조직하여 학내의 제반요소에 서부터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집단적으로 해결해가며 사회적으로 양산된 근본문제(사회변혁)를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하도록 여학우들을 주체로 세워내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총여학생회가 투쟁과 사업하는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전이라 할 것이다.



## 총여학생회가 벌려야 할 사업

사업마다 기간 벌여온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의 총체적 평가.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업을 벌여갈 것인가를 알아보겠다.

### 1) 의, 조직화의 요구

총여학생회의 모든 사업은 의식화와 조직화에 철저히 복무해야 한다.

이것은 총여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시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여학우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그들이 성숙된 인간으로 단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여학생회가 가장 중심에 놓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총여학생회가 건설된지 5년이 넘는 학교나 이제 갓 건설된 학교나 그 조직적 수준은 별 차이가 없다. 서울의 모학교는 이미 총여학생회가 해체되었거나 총여학생회의 해체에 대해 '발전적인 해체'라는 미명으로 논란이 분분하다.

현재 총여학생회가 있는 학교의 경우 '혹시나 저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움해는 어떻게든 바둥거리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내년은 모른다'는 불안감! 이러한 불안감은 총여학생회를 받쳐줄 하부, 학생회를 지켜줄 학우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남지 않는 조직은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현상유지는커녕, 퇴보의 길은 걷게 된다. 총여학생회를 유지시켜내지 못하는 여학우를 책임질 수 있는 단위의 상실을 의미한다. 즉, 조직의 생명은 그 조직성원의 생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에 그 조직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조직화하는데 복무하지 못하면서 일상사업에 매몰되었던 것을 반성하며 이후 총여학생회가 주력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짚어본다.

#### 빨간 불을 알린다!

먼저,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사업에 의식화를 병행했을 경우 더욱 튼튼하고 풍부한 여학생운동을 학내에서 벌여낼 수 있다.

### 2) 의, 조직화 방도

#### ① 학습, 교양체계

사람은 의식성을 가지므로 주, 객관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내면서 스스로의 의지도 높여낸다. 이것이 학습이나, 교양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대중이라 할 수 있는 학우들을 만나는 간부들의 경우 이러한 의지를 높여내고 튼튼히 할 수 있는 교양이나 학습이 중요하다.

간부들이 학습구조, 그에 따른 단련구조를 가질 때 그 간부 스스로 성숙된 인간으로 그의 처지를 극복하는 길에 관건이 핵심으로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의 여학우들을 의, 조직화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중앙 여성일꾼들을 먼저 학습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중앙집행간부부터 학습할 수 있는 구조, 학습교양체계가 있어야 한다.

사업이 방만하게 진행되다보면 교양, 학습이 흐지부지하게 될 소지가 높다. 그러므로 교양주체를 명확히 두고 그 주체가 교양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용성여대협외의 외국어대의 경우, 모든 집행부서가 교육체계내에 있고 특히 회장이나 부회장이 교육체계를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체계가 굳건하게 유지되며 무슨 일이든지 교육체계를 통해 교양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 사업이나 투쟁을 전개한다. 즉, '의식하였으니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진 형태이다.

사람 남기기에 복습을 곁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더불어 단대여부장이나 과여부장의 경우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된다. 중앙도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부장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이 힘들다! 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의 심정이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단대여부장을 조직하고 지도할 핵심

이 없었고 그들을 책임지고 단련시킬 수 있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부장의 경우 대부분이 애국적 학우로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깨기위해 이러한 직책을 맡았거나 그런 의식이 없더라도 여학우들중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학우가 여부장을 맡는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여부장을 올바르게 지도하면 여부장 자신이 억압받는 처지를 극복하려는 자주성으로 튼튼한 핵심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유의깊게 보면서 단련체계를 세밀히 고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대나 과여부장의 경우 학습과 교양이 거의 없거나, 하더라도 여부장들의 참여율이 낮은 회의속에서 진행되어 힘있는 교양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여 중앙에 있는 여성문제연구소(이하 여문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일상적인 교양과 총화체계를 건설함과 동시에 회의라는 틀속에서도 교양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혹은 중앙집행간부인이 책임맡은 단대를 하방하면서 그 단대 보임을 따로 구성하거나 회의에 결합하여 학습과 사업을 지도하는 형태도 있겠다. 여기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중앙의 지도이다. 여학우들의 자발적인 노력속에 과나 단대에 친목계의 형태나 어떤 목적을 가진 형태의 소모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모임들은 목적의식성과 지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처음의 의도가 빛나가 이름없는 모임이 되거나 모임자체가 깨져버린다. 즉, 목적의식적인 지도가 있어야 그 조직의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학생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중앙의 여문연이나 단대의 여부장모임도 마찬가지로 중앙의 지도가 될 수 있고 총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학우들이 의식한 만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여문연의 경우, 자체 연구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신문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영화상영회, 토론회, 발표회, 설문조사등의 자체사업을 한다. 또한 총여학생회와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총여사업을 벌여냄에 있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분공을 조직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중앙간부나 단대, 과여부장들의 경우도 학습을 진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총화집을 잡아갈 것이 중요하다.

## ②소모임 건설

소모임 건설은 총여가 건설되면서부터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그것은 소모임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조직적으로 수렴하고 풀어낼 수 있는 총여의 조직적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여학우들이 성숙된 인간으로 자리 잡아갈 데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게 건설해놓으면 계속 책임지고 운영할 주체가 없어 깨지거나 주체를 마련하더라도 전대와 후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어 맥이 끊어져버리는 경우, 즉 사람도 남지 못할 뿐 아니라 깨어지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이끌어갔던 성원의 경우 회의내지는 패배감에 빠져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웠던 것이 지름까지의 경험이다.

즉 소모임의 건설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모임을 건설하고 운영할 핵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소모임이 그 명맥을 유지하며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그 소모임에 있어 명확한 운영지침과 방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소모임이 정말 어렵게 건설되고 운영할 주체까지 마련되지만 그 소모임의 성격규명과 운영지침, 방도가 불분명할 경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도 나중에는 모임의 성격과 맞은체 여학우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게 되며 이러한 속에서 급기야는 지치고 마는 것이다. 즉, 중앙의 명확한 총화점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운영지침을 지도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의 지도는 어떤 부분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의 지도를 보장할 간부들의 단련은 항상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 ③의, 조직화 사업에 기반한 대중사업 전개

대중사업은 말 그대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대중의 삶을 더욱더 풍부화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무작위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중사업은 무엇보다 앞에서 제안되었던 2가지들 기본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들이 총화점으로 대중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여학우들을 이 대중사업의 준비과정에 참여시키면서 더욱더 튼튼히 총여우 리로 묶고 지금까지의 개별화된 의식들을 총체적으로 풀어내고 단련시키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결코 일반학우들을 무시한 대중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조직된 여학우들을 중심으로 다른 학우들을 조직하고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인식을 줄 수 있으며 그 계기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만큼 큰 의의를 가지는 대중사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중사업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인식은 조직적 기반이 적은 상태에서 학우들에게 그나마 조직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의례히 하는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중앙간부들을 집단화시킬 수 있

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결코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 총여학생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묻  
라서 하는 말이다. 이러한 대중사업에 대한 경향을 극복하고 일회적인-한번 치르고 나면 한달가량을 쉬어야 하는 쓸모없  
는-사업이 아니라 의, 조직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총여학생회를 강화하고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  
식하고 여기에 복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④의, 조직화를 잘 하기 위한 투쟁

투쟁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속에서 억압의 요소를 없애기위해 항고하고 싸워나가는 전과정을 일컫는다. 사  
람들은 투쟁하면서 자신의 변화와 객관적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며 스스로의 자주성을 더욱 높여간다.

총여학생회 또한 여학우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투쟁을 주는 투쟁을 벌여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즉, 여학우들의 생활, 학문, 정치투쟁의 공동체로써 자  
리잡아가기 위해 총여학생회는 학우들의 자주성을 발양하기 위한 투쟁에 총 매진하여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총여학생회가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철저히 학우들에 기반한 투쟁을 전개하  
지 못했을 뿐 아니라 투쟁속에서 항상 견지해야 할 의, 조직화의 과정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보은, 진관투쟁부터 윤금이투쟁에 이르기까지 정치투쟁을 전개하면서 투쟁의 많은 성과를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  
한 투쟁들이 그 학교의 모든 여학우들이 공감하고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간부들만이 일정이 있으면 투쟁하  
고 선전 지침이 내려오면 선전하는 식이었다. 한마디로 자기만족적인 투쟁이었다.

투쟁에 있어서 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정확하고 의식의 단계를 높여내는 부분에서도 그야말로 수동적이었다. 학우들은 요  
구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파악하고 조직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방도를 모색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  
을까?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다. 즉, 이것은 자기단위의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대한 주어진 자세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한다.

총여학생회에서 개척할 수 있는 투쟁영역은 많다. 골간이 하는 투쟁을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자기 단위의 조직적 수준  
에 맞게 자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여성학 교과개편, 여학생 자치공간 마련등- 전문적으로 세밀히 연구, 조사,  
분석하여 그 학교에 맞는 투쟁을 조직하고 학우들의 의, 조직화를 더욱더 잘할수 있는 방도를 놓치지말아야 한다.

철저히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투쟁, 모든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투쟁, 치밀한 분석속에서 대안이 마련된 투  
쟁, 그속에서 학우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후속작업을 통해 조직적 성과를 남기는 투쟁!

이것이 바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써 총여학생회가 벌여가야 할 투쟁이다.

#### ⑤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양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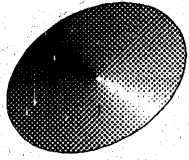
이미 조직화된 사람이며 일상적으로 학우들을 만나 조직하는 사람들인 활동가들에 대한 교양은 중요하다.

세상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 그들의 처지를 일깨우고 변혁의 길에 함께 이끌어내는 투쟁은 몇몇 여성운동가들만이 해결  
수 있는 것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에 대한 교양은 여학생활동가들의 경우 간담회나 개별적인 만남속에서 그리고 남학우간은 경우 사인별 결합이  
나 목적의식적인 선봉대 총회나 순회간담회 속에서 교양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상은 총여학생회가 지향하는 학생회다운 모습속에서 여학우들을 의, 조직화해야 하는 과제이다.

### III. 총여학생회의 부문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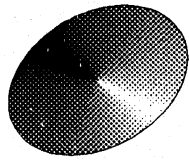
#### 여학생회의 부문적 역할의 중요성

그러면 전체 학생운동과 구국운동속에서 총여학생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총여학생회가 전체사안속에서 자기의 내용을 가지고 결합하는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총여에서는 골간에서 벌어지고 투쟁이나 사업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합지점을 찾지 못하거나 결합과정에서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전체의 요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뿐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체운동을 받아안고 있는 골간과 다소의 분제 또는 신화된 분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지점은 바로 골간과 여학생운동을 받아내는 총여학생회가 부문운동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간은 전체에 무조건 복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부문에서는 이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여 투쟁자체도 풀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투쟁을 끝내면 간부들마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 부문 운동이란?

그럼 먼저 부문운동은 무엇인가?

민중의 다종다양한 자주적 이해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구국운동을 한단계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대중화 시킴으로써 조직대오를 더욱 굳건히 세울것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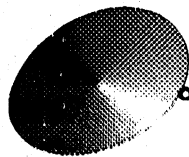
이 다종다양한 요구를 담아안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부문계열 운동이다. 이것은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분출되는 민중의 힘과 지혜를 자주, 민주, 통일의 대해로 모아가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문계열운동은 보통 부문운동과 계열운동으로 나뉜다. 부문운동과 계열운동의 역할은 위의 기본적 요구와 같으나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

부문운동은 여성운동, 종교운동, 문화운동등과 같이-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위해 제반의 억압요소를 척결하고 그 자체의 특성을 무기로 사람들을 의, 조직화하는 것으로 그 운동의 지향을 실현하고 전체운동에 복무한다.

계열운동은 부문운동(계급계층운동-학생운동, 노동자운동, 농민운동)에 속해있으면서 그 운동내에 전분면, 전강면 그 예로 학생운동에서 전국 법학과 (대학)대표자협의회,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등이 있다. -로 운동영역을 차지하며 그 전문영역에서 순수지향을 억압하는 요소를 깨나가는데 전문인력을 의, 조직화하여 자체의 내용을 획득함과 동시에 전체운동에 복무한다.

이렇듯 부문운동과 계열운동은 이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요구는 같다.



#### 여성운동이 부문운동으로 가지는 특성



## 1) 사회여성운동과 여학생운동

그렇다면 여성운동이 부문으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살펴보겠다.

그러기에 앞서 여성이 벌여내는 운동에는 사회여성운동과 여학생운동이 있는데 이 두 운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부문으로 주어진 역할을 더 상세히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같아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려 한다.

사회 여성운동과 여학생운동은 여성이라는 처지에서 나오는 여성억압의 요소를 여성이 주체가 되어 깨나가는 운동임에는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 두운동은 각각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소 다른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여성운동은 그 운동영역이 사회라는 점에서 여성문제가 첨예하게 일어나고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와닿는 부분이 많다는 것, 즉 각 여성의 처지가 직장여성, 주부와 같은 여성문제가 총체화되는 자리에 있기에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처지 하나하나를 깨어가는 데 주력하고 이것이 여성들의 의식을 깨고 조직화되어 사회구조적 모순에 다소나마 타격을 줌으로써 여성해방의 길로 일진보하고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회여성운동이 전체운동에 복무하기 보다는 자체의 내용을 풀어내는데 주력하여 전체운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머물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사회 여성운동의 한계는 많다. 너무도 넓은 사회에서 조직할 수 있는 여성에 비해 활동가들이 적어 어려운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체모임은 많지만 지도가 안되고 조직화되지 못하는 점등 객관적 어려움과 운동을 풀어나가는 주체의 문제, 조직적 한계등은 계속 풀어가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렇듯 독자성을 가지며 사회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무조건 끝간의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조직적 수준을 직시하고 여성운동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차 전체운동과의 결합점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사회여성운동이라면 학원내의 여학생운동은 운동을 이끌어갈 주체들이 여대생이라는 점과 대학생이라는 특권층(일반적 의미)속에서 여성문제가 많이 가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사회에 있는 여성에 비해 다소 불안감은(사회진출등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한)있지만 여성문제가 첨예하게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문제를 관망하거나 걱정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학생운동은 사회여성운동에 비해 의식화측면이 어렵고 학원내의 여성 해방에의 여성 자체움직임도 적어 조직화도 어렵다.

그러나 조직된 여학우들이나 소모임에 대해서는 총여학생회라는 지도조직이 있어 더 많은 핵심을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여대생이라는 청년학생으로 가지는 위치는 청년학생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조직적인 생활에 의한 집단 의식, 진보적인 사상을 사회에 비해 더 많이 접할 수 있기에 여성운동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이끌어갈 주체들의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형태도 여학우의 처지를 깨워가는 의식화와 조직화를 기본으로 여학생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원내의 투쟁과 사회전반의 여성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투쟁을 함께 진행하며 청년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체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한다.

## 2) 여성운동이 부문으로써 가지는 특성

일반적으로 여성운동이 부문으로써 가지는 특성은 종교운동이나 문화운동과는 달리 종교나 문화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변혁을 해나가는 점- 여성이라는 근본적 처지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사회변혁이라는 전체운동과 함께 진행시켜나가기야 한다. 즉, 여성의 근본적 처지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단순히 사회가 변혁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혁되면 사회적 여성 억압요소가 척결되어 여성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근본적인 억압이 발생하게된 기원에 의거하여 여성해방투쟁, 즉 여성이 하나의 해방된 인간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끈질기고 다종한 투쟁속에서 될 수 있다.

이것이 전체운동속에서 여성운동이 가지는 자체의 특성이라면 전체운동에 결합, 복무하는 특성은 전체운동의 내용적 풍부화라 할 수 있다.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는 여성의 문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결코 여성운동이라는 부문운동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지점을 전체운동화시켜내는 과정에서 찾아내고 전체운동이 풀어나가고 있는 사회,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여성이라는 처지에 기반한 문제점을 내용적으로 풍부화시켜낸다.

### 3) 여학생운동이 부문의 요구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방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운동은 여학생운동이라하여 특성이 다르지 않다.

다음은 여학생운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골간과의 문제를 중심으로 앞과 같은 맥락에서 여학생운동이 부문운동으로 풀어나갈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총여학생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점중 하나가 총여의 조직적 수준을 높여낼것에 대한 고민 다음으로 골간과의 관계풀기이다. 이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여학생운동자체의 부문운동으로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향이다. 총여학생회 건설에서부터 전체 학생운동에 있어 워낙 골간에 복무할것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항상 골간의 요구를 지금의 조직적 수준에 맞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주고민이 되고 있다. 심지어 "총여학생회 사업은 무조건 전체투쟁에 복무할 수 있으면 된다." 또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총여가 총학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말들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상적 근원을 보면 총여학생회의 부분적 요구를 모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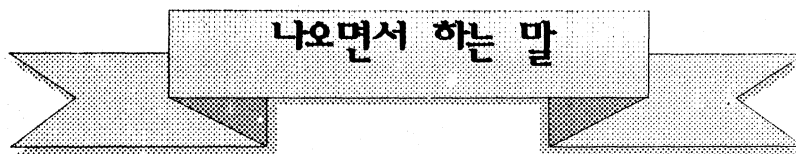
얼마전 학원자주화 투쟁속에서 윤금이 투쟁을 벌여낼것에 대해 총여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경향을 극복해 가면서 예를 들어 보겠다. 학원내에서는 한참 학자투가 일어나고 있었고 전체운동속에서 여대협에 요구된 것은 '윤금이 투쟁'이었다. 이 때 총여학생회는 학우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속에서 학원내의 전체사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총여학생회의 요구되는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하였다. 이것이 바로 총여학생회가 항상 고충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다. 이문제의 해결은 그 학교의 실정과 단위의 수준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총학생회가 학원내 문제와 함께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과 같이 총여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럴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가진 학교가 없고 실제 이 일을 해내기에는 조직적 수준이 안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윤금이 투쟁 같은 경우 여성이 가진 민족적 처지 속에서 참여화된 부분이기때문에 이 투쟁은 총여학생회가 책임져야할 투쟁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투쟁을 자체적으로 책임지기 힘들었기에 골간과 결합을 가졌고 총여학생회는 정책적인 역할-의식화 사업을 중심으로 벌여나갔다. 을 하였다. 더불어 이 투쟁을 여학우의 가슴속에서 한을 불러일으켜 의, 조직화의 성과로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책임을 함께하면서 여학우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처지 여대생이라는 처지를 같이 푸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억지로 학자투에 내용적으로 결합하기보다는 (물론 자체내용을 가지는 것이 좋다) 조직된 학우들을 중심으로 여학우들이 전체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면 '학자투를 잘하기 위한 과 여대표자모임이나 단대순례간담회', 유인물제작 및 배포, 여학우만의 자치 공간에 선전등의 방도가 있다.

여기서 보았듯이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잘해야할 것을 중심으로 투쟁과 사업을 전개하여 그 자체가 전체운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의 조직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렇듯 총여학생회 자체의 조직적 수준을 높여내고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총여학생회에 제기되는 기본적인 요구를 가슴에 새기며 여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자각속에서 고민하고 뛰어다녀야겠다. 즉, 간부들의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을 한다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학생회답다고하기에도 비흡함이 많은 지금의 총여학생회가 변화하려면 이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여학우에 대한 애정을 듬뿍 가지고 여태까지의 편향을 철저히 비판, 극복하면서 자신의 사명 을 다하여야 한다.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히 근거하고 복무하는 사업을 전개하자!

■ 학생회다운 총여학생회

여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의식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자!

■ 학우들을 만나지 않고 느낌만으로 하는 사업을 근절하자!

■ 여학우들의 눈에서 바라보고 고민을 여학우의 것이 되도록 의식화를 전개하자!

집단에 근거하고 집단에 의해 투쟁하고 사업하는 총여학생회가 되자!

여성일꾼들의 혁신으로 자신으로부터 참 삶을 일구자!